

무낙무낙무낙무낙?

백암고1 그랑 테스트 문학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느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느
 위 증즐가 대평성덕(太平盛代)

㉠날려는 엇디 살라 호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느
 위 증즐가 대평성덕(太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느는
 선희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덕(太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느
 ㉡가시느 듯 도셔 오쇼셔 나느
 위 증즐가 대평성덕(太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나)

청산(靑山)은 내 뜻이오 녹수(綠水)는 님의 정(情)이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變)홀손가

㉣녹수도 청산을 못 니저 우러 네어 가노고

- 황진이, 「청산은 내 뜻이오」

(다)

가마귀 눈비 마자 희느 듯 검노매라
 야광명월(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오라

㉤님 향(向)흔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고칠 줄이 이시랴

- 박팽년, 「가마귀 눈비 마자」

1 (가)~(다)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각 연의 끝에 동일한 후렴구를 반복하여 형식적 통일성을 형성하며, '대평성대'라는 말이 작품의 이별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은 작품이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 ② (나)는 움직이지 않는 '청산'과 흘러가는 '녹수'의 속성을 대비하여 화자와 임의 마음을 형상화하고, 이를 통해 임의 변화와 화자의 불변성을 부각한다.
- ③ (다)는 '가마귀'의 일시적인 흰 외양과 본래의 검은 속성, '야광명월'의 밝음과 '밤'의 어둠을 활용하여 화자의 가치 판단과 지향하는 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 ④ (가)의 의문 표현은 떠나는 임을 향한 화자의 안타까움과 원망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다)의 의문 표현은 이미 정해진 판단을 반문의 형식으로 강조하여 화자의 굳은 태도를 드러낸다.
- ⑤ (나)의 '청산이야 변할손가'와 '우러 네어 가노고'는 모두 실제 답을 요구하지 않는 설의적 물음이므로, 두 표현은 화자와 임의 마음이 모두 변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강조한다.

2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는 같은 물음을 되풀이함으로써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다.
- ② 2연에서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를 사용한 1연의 '브리고 가시리잇고' 다시 되풀이함으로써, 임을 향한 존중과 사랑을 드러내며, 자신을 두고 떠난다는 데서 오는 화자의 서러움을 한층 두드러지게 한다.
- ③ 3연에서는 임을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을 내비치면서도,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스스로 억누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 ④ 3연의 달리 4연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임을 높이며, 화자는 이별을 받아들이면서도 재회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다.
- ⑤ '나느'를 '여음구로 보지 않는다면 이별의 상황에 놓인 화자 자신을 거듭 드러내어 임에게 호소하는 느낌을 더한다고 볼 수 있다.

서답형 1

(1) 윗글에서 미완성 종결 부분을 찾고 그 이유를 3음절로 쓰시오.

(2) (다)에서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전개하다가 종장에서 그 자연물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 하는지 2어절 또는 1어절로 쓰쇼 마.

3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에는 풀이가 갈리는 구절이 있다.

◦ '선후면 아니 올세라'

[Ⅰ] '아니 올세라'를 '오지 않을까 두렵다'로 풀이한다. 이 경우 '선후면'은 임이 돌아오지 않게 되는 까닭에 해당한다.

[Ⅱ] '아니 올세라'를 '아니 오겠는가'로 풀이한다. 이 경우 '선후면'은 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한다.

◦ '설은 님'

[α]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으로 풀이한다.

[β] '나를 서럽게 하는 임'으로 풀이한다.

- ① [Ⅰ]과 [α]를 함께 적용하면, 화자는 자신의 행동이 임의 귀환을 방해할 가능성을 염려하여 임을 붙잡지 않으면서도, 임 역시 이별을 서러워한다고 인식하므로 재회의 가능성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 ② [Ⅰ]과 [β]를 함께 적용하면, 자신을 서럽게 하는 임에 대한 원망과 임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4연의 귀환 요청과도 양립할 수 있다.
- ③ [Ⅱ]와 [α]를 함께 적용하면, '선후면'은 임의 귀환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이해되고, 임 역시 이별을 서러워한다는 해석 역시 화자의 재회 기대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Ⅱ]와 [β]를 함께 적용하면, 자신을 서럽게 하는 임에 대한 원망과 임의 귀환에 대한 기대가 공존할 수 있으며, 이때 '선후면'은 '서낙하면', '서운하면'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⑤ [Ⅰ]과 [β]를 함께 적용하면, '설은 님'에서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드러나더라도 '선후면'을 '그악스러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나)와 (다)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청산'과 (다)의 '야광명월'은 모두 주변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본래의 속성을 유지하는 대상으로 제시되어, 화자의 변함없는 마음을 형상화하는 데 활용된다.
- ② (나)의 '녹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속성을 통해 임의 가변적인 마음을 나타내므로, (다)의 '가마귀'와 마찬가지로 화자가 부정적인 도덕성을 지닌 대상으로 평가하는 존재이다.
- ③ (다)의 '가마귀'는 눈비를 맞아 본래와 다른 외양을 잠시 드러내므로, 외부 상황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감추고 있는 화자 자신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나)의 '님'과 (다)의 '님'은 모두 화자가 변함없는 마음을 향하는 대상이며, 두 작품 모두 그 '님'이 화자와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하려 한다는 점을 자연물에 빗대어 드러낸다.
- ⑤ (다)의 '눈비'와 '밤'은 모두 대상이 처한 외부 조건에 해당하며, 각각 가마귀와 야광명월의 겉모습을 일시적으로 본래와 다르게 보이도록 한다.

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임과의 이별이 삶을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큰 충격임을 드러내지만, '엇디'는 이별 후 살아갈 구체적인 방도를 임에게 묻는 말이다.
- ② ㉡은 가시자마자 곧 돌아와 달라는 기원으로 임의 마음이 빨리 바뀌기를 호소하며, 임이 실제로 곧 돌아올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을 드러낸다.
- ③ ㉡은 가변적인 '녹수'와 불변하는 '청산'을 대비하여 임이 변하더라도 지속되는 화자의 사랑을 강조하고, 임의 가변성에 대한 서운함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물음말이 생략된 의문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의 마음이 결국 불변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⑤ ㉡은 일편단심을 고칠 리 없다는 판단을 설의적으로 강조하여,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화자의 충절을 드러낸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심술궂은 형 놀보에게 쫓겨난 흥보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루는 배고파 우는 자식들을 보다 못한 흥보가 놀보에게 양식을 얻으러 가지만 매만 맞고 쫓겨난다. 흥보는 관가에 곡식을 얻으러 갔다가 매품을 팔면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병영을 찾아가기로 한다.

흥보 마삿 돈 닷 냥 받아 차고, ‘얼씨구 즐겁도다’ 제집으로 들어가며,

“애기 어멈, 게 있는가. 문을 열고 이것 보시오. 대장부 한 걸음에 삼십 냥이 들어가네.”

흥보 아내 이른 말이,

“그 돈은 웬 돈이며 삼십 냥은 웬 돈이요?”

흥보 이른 말이,

“천기누설이라, 말부터 앞세우면 이뤄질 일 없으니, 그 돈으로 양식 팔아 배불리 질끈 먹고.”

흥보 아내 이른 말이,

“먹으니 좋소만 그 돈은 어디서 났소?”

흥보 이른 말이,

“본음 좌수 대신으로 병영 가서 곤장 맞기로 삼십 냥에 결단하고 마삿 돈 닷 냥 받아 왔네.”

흥보 아내 이 말 듣고 기가 막혀 이른 말이,

“그놈의 죄상도 모르고 병영으로 올라갔다가 저 모습 저 물골에 곤장 열을 맞으면 곤장 아래 혼백 될 것이니 제발 덕분 가지 마오.”

흥보 이른 말이,

“불기의 구실이 있나니.”

“불기가 구실이 있단 말이요?”

[A] “그렇지. 불기 구실 들어 보소. 이내 몸이 정승 되어 평교자에 앉아 볼까, 육판서 하였으면 초헌 위에 앉아 볼까, 사복시 관리 하였으면 임금 타는 말에 앉아 볼까, 팔도 감사 하여 선화당에 앉아 볼까, 각 읍 수령 하여 좋은 가마에 앉아 볼까, 좌수 별감 하여 향사당에 앉아 볼까, 이방 호장 하여 작청 좋은 자리에 앉아 볼까, 소리명창 되어 크고 넓은 좋은 집 양반 앞에 앉아 볼까, 풍류 호걸 되어 기생집에 앉아 볼까, 서울 이름난 기생 되어 가마 안에 앉아 볼까, 많은 돈 벌어 부담마에 앉아 볼까, 쓸데없는 이내 불기 놀려 무엇한단 말인가. 매품이나 팔아먹세.”

흥보 자식들이 벌 떼같이 나왔으며,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호사가 큼직하오. 그래 아버지 병영 가신다 하니, 날 오동철병 하나 사다 주오.”

흥보 이른 말이,

“고의 벼은 놈이 어디다 차게야?”

“귀밑머리에 차도 찰 터이웁고 생갈비를 뚫고 차도 찰 터이오니 사 오기만 사 오오.”

또 한 놈 나왔으며,

“나는 남수주 비단으로 만든 큰 창옷 한 벌 사다 주오.”

“고의 벼은 놈이 어디다 입게야?”

흥보 큰아들 나왔으며 제 동생들을 꾸짖는데 웅게 꾸짖는 게 아니라 하늘에 사무칠 듯 꾸짖어,

[B] “에라 심하구나, 후레야들 놈들. 아버지 그렁잡소. 나는 담비 가죽 탕평채에 모초의 한 놈과, 한포단 허리띠 비단 주머니 당팔사 끈 꿰어, 쇠거울 둘 거울 넣어다 주오.”

흥보 이른 말이,

“네 아무것도 안 찾을 듯이 하더니 단계를 높여 하는구나. 너희 놈들이 내 마른 불기를 대송방으로 아는 놈들이로구나.”

흥보 이른 말이,

“애기 어멈 그리하시오. 쉬 다녀옵세.”

흥보 병영 내려갈 제 탄식하고 내려간다.

“도로는 끝없는데 병영 성중 어디메요. 조자룡이 강을 넘던 청룡마나 있으면 이제 잠깐 가련마는, 몸이 고생스러우니 조그마한 내 다리로 오늘 가다 어디서 자며 내일 가다 어디서 잘꼬. 제갈공명 쓰던 축지법을 배웠으면 이제로 가련마는 몇 밤 자고 가잔 말가.”

여러 날 만에 병영에 당도하니 영문도 엄숙하다. 쳐다보니 대장이 지휘하는 깃발이요 내려다보니 순시하는 깃발이로다. 도군회의 차례 보소. 산짐승털 버거지에 남일광단으로 안을 받쳐, 갓끈 고리와 밀화 귀를 땀은, 궁초로 만든 갓끈 잡아매고, 관디 협수 군복 띠를 배에 둘러 매고, ‘날랄 용(勇)’이라는 글자 떡 붙이고, 흥보 앞에 썩 나서며,

“에라 이놈 게 앉거라.”

흥보 속마음에, ‘내가 분명 저승에 들어왔나 보다.’

문간에 들어가니, 어떠한 사람들이 사오 인이 앉았거늘, 흥보 들어가며,

“인사하오.”

“에 마오.”

“거기 뉘라 하오?”

“나 말씀이요? 조선 제일 가난 흥보를 모르시오.”

한 놈 나서며,

“장자가 무엇하러 와 계시오?”

흥보 가슴이 끔찍하여,

“거기는 무엇하러 왔소?”

“나는 평안도 사방동 동팔풍촌서 사는 솔봉 애비 모르시오. 이십오 대 가난으로 매품 팔러 왔소.”

또 한 놈 나왔으며,

“나는 경상도 문경 땅의 제일 가난으로 사십육 대 호적 없이 남의 결방살이로 내려오는 김딱직이란 말 듣도 못하였소.”

한 놈 나왔으며,

“이번 매품은 먼저 온 순서대로 들어간다니 그리하옵세.”

“저분 언제 왔소?”

“나 온 지는 저 지난 장날 아침밥 먹기 전 동틀 때 왔소.”

한 놈 나왔으며,

“나는 온 지가 십여 일이라도 생나무 곤장 한 대 맞아 본 내 아들놈 없소.”

홍보 이른 말이,
 “그리 말고 서로 가난 자랑하여 아무라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 팔아 갑세.”
 그 말이 옳다 하고,
 “저분 가난 어떠하오?”
 “내 가난 들어 보오. 집이라고 들어가면 사방 어디로도 들어갈 작은 곳이 없어, 닫는 벼룩 쪼그려 앉을 데 없고 삼순구식 먹어 본 내 아들 없소.”
 한 놈 나았으며,
 “죽히 먹고살 수는 있겠소. 저분 가난 어떠하오?”
[C] “내 가난 들어 보오. 내 가난 남과 달라 이 대째 내려오는 광주산 사발 하나 선반에 얹은 지가 팔 년이로되, 여러 날 내려오지 못하고 아침저녁으로 눈물만 뚝뚝 짓고, 부엌의 노랑 쥐가 밥알을 주우려고 다니다가 다리에 가래뿔이 서서 종기 터뜨리고 드러누운 지가 석 달 되었소. 좌우 들으신 바 내 신세 어떠하오?”
 김딱직이 썩 나았으며,
 “거기는 참으로 장자라 할 수 있소. 내 가난 들어 보오. 조그마한 한 칸 초막 발 뼘을 길 전혀 없어, 우리 아내와 나와 둘이 안고 누워 있으면 내 상투는 울 밖으로 우뚝 나가고, 우리 아내 궁둥이는 담 밖으로 알궁둥이 보이니, 동네에서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이 우리 아내 궁둥이 치는 소리 사월 팔일 관등 다는 소리 같고, 집에 연기 나지 않은 지가 삼 년째 되었소. 좌우 들으신 바 내 신세 어떠하오? 아무 목욕의 아들놈도 못 팔아 갈 것이니.”
 이놈 아주 거기서 계정을 먹더니라. 홍보 숨숨 생각하니, 자기에게는 어느 시절에 차레가 돌아올 줄 몰라,
 “동무님, 내 매품이나 잘 팔아 가지고 가오. 나는 돌아가오.”
 하직하고 돌아오며, 탄식하고 집에 들어가니, 홍보 아내 거동 보소. 왈각 뛰어 달려들어 홍보 소매 검쳐 잡고 듣기 싫을 정도로 크고 쉴게 울며,
 “하늘이 사람들을 세상에 나게 할 때 반드시 자기 할 일을 주었으니, 생기는 대로 먹고살지 남 대신으로 맞을까. 애고애고 설움이야.”
 이렇듯 쉴게 우니 홍보 이른 말이,
 “애기 어멈 울지 마소. 애기 어멈 울지 마소. 영문에 들어오니 세상의 가난한 놈은 거기 모두 모여 내 가난은 거기다 비교하니 장자라 일컬을 수 있어, 매도 못 맞고 돌아왔네.”
 홍보 아내 이 말 듣고,
 “얼씨구나 즐겁도다. 우리 낭군 병영 내려갔다 매 아니 맞고 돌아오니, 이런 영화 또 있을까.”
 “배고픔을 생각하여 음식 노래 불러 보자. 무슨 밥이 좋던 게요? 보리밥이 좋거던. 무슨 국이 좋던 게요? 비지국이 좋거던. 음식을 맛있게 하여 먹으려면, 개장국에 늙은 호박을 따 넣고 송농에는 고춧가루를 많이 치고 들기름을 많이 쳐, 사공은 괴공이 먹을 만하고, 이만큼 시장할 때는 들깨 깻묵 두어 돌레쯤 먹고 찬물 댓 사발쯤 먹었으면 든든커던.”
 이렇게 말을 할 제 홍보 아내 우는 말이,

“우정 가장 애중 자식 배굴리고 못 입히는 내 설움 의논컨대 피눈물이 반죽 되면 아황 여영 설움이요, 흥곡가를 지어 내던 왕소군의 설움이요, 장신궁중 꽃이 피니 반첩여의 설움이요, 옥으로 장식한 장막 속에서 죽으니 우미인의 설움이요, 목을 잘라 절사하니 하씨 열녀 설움이요, 만경창파 너른 물을 말말이 다 되인들 끝없는 이내 설움 어디다 하소연할꼬.”
 홍보 역시 슬퍼, 샘물같이 솟아 나오는 눈물 가랑비같이 흘리며 목이 막혀 기절하더니 다시 살아나서, 들릴 듯 말 듯한 말로 겨우 내어 기운 없이 가는 목소리를 처량하게 슬피 울며 만류하여 이른 말이,
 “마음만 윤택 먹고 의롭지 않은 일 아니하면 장래 한때 볼 것이니 서러워 말고 살아나세.”
 부부 앉아 탄식할 제, 청산은 높이 솟아 있고 온갖 꽃이 화려하고 찬란하게 피어 있는 때 접동 두견 꾀꼬리는 때를 찾아 슬피 우니 뉘 아니 슬퍼하리.

6 윗글의 문체적 특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판소리 창자의 말투가 남아 있어 서술자가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듯한 구어적 성격이 나타난다.
- ②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과 다양한 대상의 열거를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사설을 확장한다.
- ③ 일상어와 속어뿐만 아니라 한자어와 한문 투의 표현도 함께 사용되어 다양한 계층의 언어가 혼재한다.
- ④ 인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서술자가 장면에 개입하거나 인물의 행동을 평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⑤ 반복과 열거를 활용하여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압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건 전개 속도를 높인다.

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희화화는 대상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거나 평가하기보다,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와 실제 행위 사이의 부조응을 확대하거나, 통상적인 가치의 위계를 전도하거나, 인물의 자기모순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형상화하는 재현 전략이다. 이때 해학적 희화화는 대상과 일정한 정서적 친연성을 유지한 채 상황의 불균형을 웃음으로 전환하는 데 비해, 풍자적 희화화는 그 웃음을 통해 인물이나 사회가 지닌 모순을 비판적으로 가시화하는 경향이 있다.

- ① 홍보가 높은 벼슬과 그에 딸린 자리를 차례로 발탁한 끝에 자신의 볼기를 매품에 쓰겠다고 하는 부분은 정서적 친연성을 유지한 웃음에 해당한다.
- ② 동생들의 철없는 요구를 크게 꾸짖던 큰아들이 오히려 더 많은 물건을 요구하는 것은, 인물의 언행 사이에 나타난 자기모순을 드러내어 자식들의 철없음을 희화화하여 보여주는 부분이다.
- ③ 스스로를 '조선 제일 가난 홍보'라고 소개한 홍보를 다른 인물이 '장자'라고 부르는 것은, 가난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빈부의 위계를 뒤집어 웃음을 유발한다.
- ④ 홍보가 먼저 온 사람이 매품을 팔자고 제안하였다가 자신의 차례가 늦어질 것을 염려해 다시 가난 자랑으로 경쟁 방식을 바꾸는 것은, 생존을 위해 규칙까지 임의로 바꾸는 인물을 해학적으로 보여준다.
- ⑤ 김딱직이 몸의 일부가 집 밖으로 나올 정도로 초막이 좁다고 말하는 것은, 빈곤의 정도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까지 확대하여 웃음을 유발하면서 극심한 가난을 부각한다.

8 다음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여러 대상을 열거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홍보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모습을 '벌 떼'에 빗대어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부엌의 쥐마저 병이 들었다는 상황을 과장하여 인물의 가난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D]에서는 좁은 집 때문에 부부의 신체 일부가 집 밖으로 나온다고 과장하여 가난한 처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C]와 [D]에서는 인물의 처지를 자연물에 빗대는 비유를 중심으로 현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9 윗글의 사건 및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홍보는 매품의 대가인 삼십 냥 가운데 닷 냥을 선금 명목으로 미리 받아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돈의 출처를 밝힌다.
- ② 오동철병을 요구했던 아들이 뒤이어 동생들을 꾸짖고 더 값진 물건들을 요구하자, 홍보는 그 요구의 단계가 높아졌으며 나무란다.
- ③ 솔봉 애비는 이십오 대째 가난하다고 말하고, 김딱직은 사십육 대째 호적도 없이 결방살이를 해 왔다고 하여 자신이 더 오랫동안 가난했음을 내세운다.
- ④ 홍보 아내는 홍보가 매품을 팔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말을 듣자, 남편이 매를 맞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안도하면서도 돈을 벌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
- ⑤ 홍보는 김딱직보다 먼저 병영에 도착했음에도 김딱직이 자신의 순서가 앞선다고 주장하자, 매품을 팔 차례를 양보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표현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판소리게 소설에서는 인물의 행동이나 처지를 짧게 요약하기보다, 말과 행동을 반복·열거·과장하여 장면을 길게 확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처지가 극대화되고, 공연 현장의 흥취와 웃음이 살아난다. 그러나 동일한 확대 방식이라도 장면에 따라 웃음을 유발하거나 슬픔을 심화하는 등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 ① 흥보가 여러 높은 벼슬과 가마를 열거하는 부분은 흥보가 실제로 경험한 과거의 영화를 세밀하게 회상하여 현재의 몰락을 비극적으로 강조한다.
- ② 흥보 자식들이 요구하는 물건을 잇달아 제시하는 부분은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물로 보여 주어 이후의 신분 상승을 예고한다.
- ③ 가난 자랑에서 집의 크기, 사발, 부엌의 쥐, 신체의 일부 등을 구체적으로 과장하는 방식은 가난의 정도를 눈앞의 장면처럼 확대하여 해학과 현실 비판을 함께 형성한다.
- ④ 흥보 아내가 ‘아항·여영·왕소군·반첩여·우미인’ 등의 인물을 잇달아 거론하는 부분은 자신의 설움과 다른 인물들의 설움을 대조하여 자신의 슬픔이 그들보다 가볍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⑤ ‘흥보 아내 거동 보소’와 같은 표현은 장면을 확대하는 서술을 중단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판소리 특유의 공연적 성격을 소설 문체에서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보 마누라, 슬퍼 마오. 가난 구제는 나라에서도 못한다 하니 형님인들 어찌하시겠소? 우리 부부가 품이나 팔아 살아 갑시다.”

흥부 아내 이 말에 순종하여 서로 나가서 품을 팔기로 하였다. 흥부 아내는 방아 찧기, 술집의 술 거르기, 초상난 집 제복 짓기, 대사 치르는 집 그릇 닦기, 굶는 집의 떡 만들기, 얼음이 풀릴 때면 나물 캐기, 봄보리 갈아 보리 놓기. 흥부는 이월 동풍에 가래질하기, 삼사월에 부침질하기, 일등 전답의 무논 갈기, 이 집 저 집 돌아가며 이영 엮기 등 이렇게 내외가 온갖 품을 다 팔았다. 그러나 역시 살기는 막연하였다.

(중략)

큰 구렁이가 제비 새끼를 모조리 잡아먹고 남은 한 마리가 허공으로 뚝 떨어져 피를 흘리며 발발 떠는 것이었다. 흥부 아내가 명주실을 급히 찾아내어 주니 흥부는 얼른 받아 제비 새끼의 상한 다리를 곱게 감아 매어 찬 이슬에 얹어 두었다. 그랬더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리하여 십여 일이 지나

자 상한 다리가 제대로 소생되어 날아다니게 되니, 줄에 앉아 재잘거리며 울고 동당실 떠서 날아갈 때 소상강 기러기는 왔노라 하고 강남 가는 제비는 가노라 하직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제비가 강남 수천 리를 훨훨 날아가서 제비 왕을 뵈러 가니 제비 왕이 물었다.

“경은 어찌하여 다리를 절며 들어오느냐?”

“신의 부모가 조선국에 나가 흥부의 집에 깃들었는데 뜻밖에 큰 구렁이의 화를 입어 다리가 부러져 죽을 것을 흥부의 구조를 받아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흥부의 가난을 면케 해주신다면 소신은 그 은공을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까 합니다.”

“흥부는 과연 어진 사람이다. 공 있는 자에게 보은함은 군자의 도리이니, 그 은혜를 어찌 아니 갚으랴? 내가 박씨 하나를 줄 테니 경은 가지고 나가 은혜를 갚도록 하라.”

제비가 왕께 감사드리고 물러 나와서 그럭저럭 그 해를 넘기고 이듬해 춘삼월을 맞으니 모든 제비가 타국으로 건너갈 때였다. 그 제비 허공 중천에 높이 떠서 박씨를 입에 물고 너울너울 자주자주 바삐 날아 흥부네 집 동네를 찾아들어 너울너울 넘노는 거동은 마치 북해 흑룡이 여의주를 물고 오색구름 사이로 넘는 듯, 단산의 어린 봉이 대씨를 물고 오동나무에서 노니는 듯, 황금 같은 피꼬리가 봄빛을 띠고 수암버들 사이를 오가는 듯하였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넘노는 거동을 흥부 아내가 먼저 보고 반긴다.

“여보, 아이 아버지, 작년에 왔던 제비가 입에 무엇을 물고 와서 저토록 넘놀고 있으니 어서 나와 구경하오.”

흥부가 나와 보고 이상히 여기고 있으려니 그 제비가 머리위를 날아들며 입에 물었던 것을 앞애다 떨어뜨린다. 집어보니 한가운데 ‘보은(報恩)박’이란 글 석 자가 쓰인 박씨였다.

그것을 울타리 밑에 터를 닦고 심었더니 이삼일에 싹이 나고, 사오일에 순이 뻗어 마디마디 잎이 나고, 줄기마다 꽃이 피어 박 네 통이 열린 것이다. 추석날 아침이었다. 배가 고파 죽겠으니 영근 박 한 통을 따서 박속이나 지저 먹자하고 박을 따서 먹줄을 반듯하게 굿고서 흥부 내외는 톱을 마주 잡고 컸다. 이렇게 밀거니 당기거니 커서 툭 타 놓으니 오색 채운이 서리며 청의동자 한 쌍이 나오는 것이었다.

원손에 약병을 들고 오른손에 쟁반을 눈 위로 높이 받쳐 들고 나온 그 동자들은,

“이것을 값으로 따지면 억만 냥이 넘으니 팔아서 쓰십시오.”라고 말하며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박 한 통을 또 따놓고 슬근슬근 톱질이다. 싹삭 쿵각 툭 타놓으니 속에서 온갖 세간불이가 나왔다.

또 한 통을 따서 먹줄 쳐서 톱을 걸고 툭 타 놓으니 순금 궤가 하나 나왔다. 금거북 자물쇠를 채웠는데 열어 보니 황금, 백금, 밀화, 호박, 산호, 진주, 주사, 사향 등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쏟으면 또 가득 차고 또 가득 차고 해서 밤낮 쏟고 나니 큰 부자가 된 것이다.

다시 한 통을 툭 타 놓으니 일등 목수들과 각종 곡식이 나왔다. 그 목수들은 우선 명당을 가려 터를 잡고 집을 지었다.

그다음 또 사내종, 계집종, 아이종이 나오며 온갖 것을 여

기저기 다 쌓고 법석이니 흥부 내외는 좋아하고 춤을 추며 돌아다녔다.

이리하여 흥부는 좋은 집에서 즐거움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이런 소문이 놀부 귀에 들어가니,

“이놈이 도둑질을 했나? 내가 가서 옥대기면¹⁾ 반재산을 뺏어낼 것이다.”

벼락같이 건너가 닥치는 대로 살림살이를 쳐부수는 것이었다.

한참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마침 출타 중이던 흥부가 들어왔다.

“네 이놈, 도둑질을 얼마나 했느냐?”

“형님 그 말씀이 웬 말씀이요?”

흥부가 앞뒷일을 자세히 말하자, 그럼 네 집 구경을 자세히 하자고 놀부가 나섰다.

흥부는 형을 데리고 돌아다니며 집 구경을 시키는데 놀부가 재물이 나오는 화초장²⁾을 달라고 했다. 그러고는 흥부가 화초장을 하인을 시켜 보내주겠다는 것도 마다하고 스스로 짊어지고 가서 집에 이르니 놀부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리고 그 출처와 흥부가 부자가 된 연유를 알게 되자,

“우리도 다리 부러진 제비 하나 만났으면 그 아니 좋겠소?”

라며, 그해 동지설날부터 제비를 기다렸다.

- 〈흥부전〉

[어휘 풀이]

1) 옥대기면 : 난폭하게 욕박질러 협박하면.

2) 화초장 : 문짝에 유리를 붙이고 화초 무늬를 채색한 옷장.

1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의 행동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 ②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④ 전기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인 장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서로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두 인물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흥부 아내는 제비가 찾아온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챈다.
- ② 놀부는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동을 부린다.
- ③ 흥부는 가난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놀부를 원망하지 않는다.
- ④ 제비는 왕을 찾아가 흥부에게 은혜를 갚게 해 달라고 간청한다.
- ⑤ 흥부는 제비가 가져다준 박씨를 보고 신묘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한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선 시대 판소리의 향유층은 생계가 곤궁한 서민들이었는데, 판소리계 소설들은 이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되었다. 〈흥부전〉은 판소리계 소설로, 서민들은 착한 흥부 내외가 결국 부자가 되는 것을 보며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고, 자신들 역시 착하게 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믿음을 공고히 하기도 하였다.

판소리계 소설의 특성은 이본(異本)이 많다는 것이다. 〈흥부전〉에서 흥부가 박을 타는 장면은 판본에 따라 그 길이가 상이한데, 박에서 나오는 금은보화의 종류를 장황하게 늘어놓느라 길이가 한없이 길어지는 판본도 있다.

- ① ‘내외가 온갖 품을 다 팔’아도 ‘살기는 막연’한 흥부 내외의 모습은 조선 시대 서민들의 궁핍한 모습을 대면한다고 볼 수 있군.
- ② 흥부 내외가 ‘제비 새끼의 상한 다리’를 고쳐주고 놀부에게 ‘화초장’을 주는 것 등에서 그들의 선한 성정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보은박’의 존재와 그 기능은 이 소설의 향유층에게 있어서 대리만족의 감정을 안겨주는 것이겠군.
- ④ 흥부가 박에서 얻은 ‘온갖 세간불이’의 종류를 더욱 자세히 묘사한 다른 판본이 존재할 수도 있겠군.
- ⑤ ‘다리 부러진 제비 하나’를 기대하는 놀부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향한 서민들의 낙관적인 기대감을 엿볼 수 있군.

서답형 2 윗글에서 놀부의 심성을 간접 제시하는 문장을 찾아서 그 문장의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시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산(靑山)은 내 뜻이오 녹수(綠水)는 님의 정(情)이
녹수(綠水) 흘러간들 청산(靑山)이야 변(變)홀손가
녹수(綠水)도 청산(靑山)을 못 니저 우러 네어 가노고
- 황진이

(나)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외헤 매게 쏘친 가토리 안과
대천(大川) 바다 한가온대 일천 석(一千石) 시른 비에 노도
일코 닛도 일코 농총도 근코 돛대도 것고 치도 싸지고 부람
부러 물결 치고 안개 뒤섯게 조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千里萬里)
나문되 사면(四面)이 거머 어득져못 천지적막(天地寂
寞) 가치노을 췌노되 수적(水賊) 만난 도사공(都沙工)의 안과
엇그제 님 여힌 내 안히야 엇다가 그을 후리오
- 작자 미상

(다)

벽사창(碧紗窓) 밖이 어른어른커놀 임만 너겨 나가 보니
임은 아니 오고 명월(明月)이 만정(滿庭)흔디 벽오동(碧梧
桐) 저즌 남해 봉황(鳳凰)이 노려와 짓다듬는 그림자로다
모쳐라 밤일식만정 님 우일 번후괘라
- 작자 미상

14 (가)~(다)의 표현상 특징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다른 대상이나 상황과의 대응 관계를 통해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모두 자연물을 활용하지만, (가)는 자연물의 속성을 화자와 임의 마음에 대응시키고, (다)는 자연물이 만들어내는 풍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구체적인 장면을 제시하여 임과 관련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지만, (나)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다)는 화자의 기대가 뒤집히는 장면을 제시한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각각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과 임을 잃은 슬픔의 정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다)는 모두 자연물의 시각적 이미지를 임과 직접 대응되는 상징으로 제시하여, 임의 상태를 화자가 인식하는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5 (가)~(다)에 사용된 소재의 기능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청산'과 (나)의 '까투리'는 모두 화자 자신을 직접 대신하는 분신으로 설정되어 화자의 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 ② (나)의 '도사공'과 (다)의 '봉황'은 모두 화자의 심정을 객관적으로 대신 표현하는 대상으로서 임의 부재에서 오는 슬픔을 직접 드러낸다.
- ③ (가)의 '녹수'가 임의 가변적인 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비해, (다)의 '그림자'는 임 자체를 상징하기보다 화자가 이를 임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임을 향한 그리움의 깊이를 드러내는 계기로 기능한다.
- ④ (가)의 '녹수'와 (다)의 '명월'은 모두 임의 마음이 화자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어 이별의 상황을 구체화한다.
- ⑤ (나)의 '수적'과 달리 (다)의 '그림자'는 화자와 임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기능한다.

서답형 3 <보기>는 (나)의 '안개 뒤섯게 조진 날'과 (다)의 '밤'의 차이점을 서술한 것이다. ㉠과 ㉡에 알맞은 말을 1어절로 쓰시오.

보 기

두 공간적 배경의 상황은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화자가 이를 사용하는 의도는 정 반대인데, (나)에서는 대상의 ㉠을/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이와 반대로 (다)에서의 '밤'은 화자의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화자에게 ㉡을/를 주는 시간이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의 화자의 태도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별이나 임의 부재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는 작품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화자는 상대의 변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지속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극단적인 상황과 견주어 그 강도를 부각할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기대가 현실과 어긋났음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동을 일정한 거리에서 바라보며 정서를 해학적으로 형상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화자의 태도를 파악할 때에는 단순히 '슬픔'이나 '그리움'과 같은 정서뿐 아니라, 그 정서를 화자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 ① (가)와 (나)는 모두 임과 관련된 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지만, (가)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나)는 자신의 슬픔이 다른 어떤 절박한 상황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② (가)와 (다)는 모두 임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현재의 상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지만, (가)는 임도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다)는 임을 향한 지나친 그리움 때문에 생긴 일화를 해학적으로 보여준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화자의 내면을 구체적인 외부 장면을 통해 드러내지만, (나)는 달리 비교 대상의 위기를 통해 이별의 고통을 극대화하지만 (다)는 화자 본인이 행한 일화를 통해 보여준다는 차이가 있다.
- ④ (나)와 (다)는 모두 다소 과장되거나 우스꽝스러운 사건을 활용하지만, (나)는 자신의 슬픔을 더욱 크게 부각하는 데 이를 활용하고, (다)는 자신의 성급한 행동을 돌아보며 화자 자신을 웃음의 대상으로 삼는 데 활용한다.
- ⑤ (가)와 (다)는 모두 임의 마음이나 임의 부재가 화자의 바람과 어긋나 있음을 인식한 뒤, 더 이상 임에게 기대하지 않고 관계의 단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너 떠나간 지
세상의 달력으론 열흘 되었고
①내 피의 달력으론 십 년 되었다

나 슬픈 것은
네가 없는데도
밤 오면 잠들어야 하고
끼니 오면

입안 가득 밥알 떠 넣는 일이다

옛날 옛날 적
그 사람 되어 가며
그냥 그렇게 너를 잊는 일이다

이 아픔 그대로 있으면
①그래서 숨 막혀 나 죽으면
원도 없으리라

그러나
나 진실로 슬픈 것은

언젠가 너와 내가
이 뜨거움 까맣게
잊는다는 일이다

- 문정희, 「이별 이후」

(나)
너를 기다리다가
②오늘 하루도 마지막 날처럼 지나갔다
너를 기다리다가
③사랑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바람은 불고 강물은 흐르고
어느새 강변의 불빛마저 꺼져 버린 뒤
너를 기다리다가
④열차는 또다시 내 가슴 위로 소리 없이 지나갔다
우리가 만남이라고 불렀던
첫눈 내리는 강변역에서
내가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의 운명보다 언제나
너의 운명을 더 슬퍼하기 때문이다
그 언젠가 겨울 산에서
저녁 별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렀던
바람 부는 강변역에서
나는 오늘도
⑤우리가 물결처럼
다시 만나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

- 정호승, 「강변역에서」

1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전적인 시간 구성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⑤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을 통해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1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너'와의 이별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② ㉡: '너'와의 이별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③ ㉢: 이별 후에도 '너'를 향해 지속되는 화자의 사랑과 고통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④ ㉣: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너'를 기다리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 사랑했던 '너'와 재회해야 한다는 화자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19 (가)의 화자의 입장에서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랑의 모습이 인생의 여러 사건들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기억된다는 것
- ② 지나가 버린 사랑일지라도 나의 인생 속에서 추억이 되어 계속 존재한다는 것
- ③ 시간의 흐름 속에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랑도 역시 기다림이라는 것
- ④ 삶과 일상은 언제나 지속되며 이별의 아픔도 시간의 흐름 속에 잊혀 간다는 것
- ⑤ 사랑도 인생의 다양한 사건들처럼 나에게 다양한 감정을 체험하도록 한다는 것

20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문정희의 「이별 이후」와 정호승의 「강변역에서」는 모두 남녀 간의 이별을 소재로 이별의 아픔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두 작품은 모두 이별한 화자의 내밀한 심리를 드러내면서 이별한 사람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별에 대응하는 상이한 양상과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화자는 '네가 없는데도', '언젠가'와 같이 이별 이후의 시간에 이별한 사람이 잊혀 가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나)의 화자는 '우리가 만남이라고 불렀던',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렀던'과 같은 표현을 통해 과거의 추억을 환기하며 '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③ (가)는 '열흘', '십 년'과 같은 시간을 중심으로, (나)는 '첫 눈 내리는 강변역'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너'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의 화자는 '너와 내가'라는 표현을 활용하여, (나)의 화자는 '우리'라는 표현을 활용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군.
- ⑤ (가)의 화자는 '잊는 일', '잊는다는 일'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의 화자는 '기다리다가', '다시 만나야 할 날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각각 이별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강원희국어학원

흔들리지 않는 국어 자신감